

골가뭄 황희찬 드디어 첫 골...리버풀 상대로 또 골맛

후반 17분 교체 투입돼 4분 만에 골 넣어
17경기 무득점 황희찬, 18경기만에 득점
2019년 10월 골 넣었던 리버풀에 또 타격

올 시즌 무득점에 시달리던 황희찬(27·울버햄튼)이 드디어 시즌 첫 골을 넣었다. 상대는 2019년에도 골을 넣었던 강호 리버풀이다. 황희찬은 8일(한국시간) 영국 머지사이드 안필드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64강)에서 교체 출전해 1골을 기록했다. 팀은 2-2로 비겼다. 황희찬은 이날 1-2로 뒤진 후반 17분 교체 투입됐다. 가벼운 몸놀림을 보인 황희찬은 후반 21분 중원에서 패스를 받은 뒤 재빠르게 뒤돌아서

뒤 리버풀 문전으로 드리블했다. 황희찬은 아크 부근에서 이적생 마테우스 쿠냐에게 전진 패스를 주고 문전으로 쇄도했다. 쿠냐는 황희찬을 향해 다시 땅볼 크로스를 찼고 황희찬은 공을 향해 몸을 날리며 발을 뻗었다. 공은 리버풀 중앙 수비수 코나테의 발에 걸린 뒤 황희찬의 몸을 맞고 골문으로 향했다. 공은 리버풀 알리송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굴러 들어갔다. 이 경기 전까지 17경기에서 무득점에 시달리던 황희찬은 시즌 첫 골의 기쁨을 맛봤다.

황희찬은 이날 도움도 추가할 뻔했다. 후반 36분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리버풀 문전에서 공을 따낸 황희찬은 왼발로 공을 골문 앞으로 보냈다. 동료 토티 고메스가 발뒤꿈치로 공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황희찬의 동점골로 양 팀은 2-2로 비겨 재경기를 치르게 됐다.

황희찬이 리버풀을 상대로 또 골을 넣은 것 역시 의미가 있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RB잘츠부르크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리버풀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바 있다.

리버풀을 상대로 또 다시 골맛을 흔든 황희찬이 FA컵 재경기에서도 골 사냥에 나설지 주목된다.

뉴시스



피겨 간판 차준환, 전국남녀 피겨 선수권 7연패 달성

최종 합계 271.21점...선수 10명 중 1위
쿼드러플 토투프 점프서 빙판 넘어져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2·고려대)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서 7연패를 달성했다.

차준환은 8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77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시니어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70.17점을 받았다.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 점수 101.04점을 합해 최종 합계 271.21점으로 우승했다.

출전 선수 10명 중 마지막으로 나선 차준환은 올 시즌 프리스케이팅 곡인 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에 맞춰 경기를 시작했다.

차준환은 첫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에 성공했지만 이어진 쿼드러플 토투프에서는 빙판에 넘어졌다.

이어 차준환은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에 성공해 분위기를 바꿨고 플라이잉 카멜 스핀과 체인지 풋 콤



비네이션 스핀을 수행했다. 차준환은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 콤비네이션 점프에 성공했지만 이어진 트리플 악셀-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싱글 악셀에 그쳤다.

그는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러츠에 싱글 오일러와 트리플 살코를 붙이며 점프 과제를 마쳤다. 이후 차준환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

핀과 장기인 이너바우어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2위는 김현겸(한광고), 3위는 서민규(경신중), 4위는 이시형(고려대)이었다.

이로써 차준환은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뉴시스

강이슬, 올스타 3점슛 콘테스트 우승...사상 첫 3연패

2018~2019, 2019~2020시즌에 이어 3연속 우승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의 에이스 강이슬(29)이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했다.

강이슬은 8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쏘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3점슛 콘테스트' 결선에서 19점을 넣어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8~2019시즌, 2019~2020시즌 3점슛 콘테스트에서 연달아 우승한 강이슬은 3년 만에 열린 올스타전에서 다시 한 번 3점슛 콘테스트 정상에 등극했다.

2020~2021시즌, 2021~2022시즌 올스타전이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강이슬은 여자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3점

슛 콘테스트 3연패의 기쁨을 누렸다. 아울러 강이슬은 박혜진(아산 우리은행)과 함께 통산 최다 우승 공동 1위(3회)에 올랐다.

3점슛 콘테스트는 1분간 5개 구역 당 공 5개씩 총 25개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구역 마지막 쉼터 공에는 2점씩이 걸렸다.

올스타전 본 경기를 앞두고 열린 예선에서 김애나(부천 하나원큐), 이소희(부산 BNK)가 각각 14점을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했다.

여기에 '디펜딩 챔피언' 강이슬이 예선을 거치지 않고 결선에 직행해 함께 대결했다. 가장 마지막 순서로 나선 강이슬은 처음



5개를 모두 성공하며 우승 기대감을 부풀렸고, 패조의 위험을 이여간 끝에 정상 등극에 성공했다. 2점이 걸린 컬러 공도 3개나 성공했다.

김애나는 컬러 공 2개를 포함해 16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번 시즌 3점슛 성공 개수 1위 이소희는 12점으로 3위가 됐다.

강이슬은 이번 시즌 3점슛 성공 개수에서 29개로 공동 3위에 올라있다.

뉴시스

전남 검증된 GK 최봉진 FA로 영입

전남이 검증된 골키퍼 최봉진을 FA로 영입했다.

최봉진은 194cm의 장신 골키퍼로 '거미손'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양산중-부경고를 거쳐 중앙대로 진학한 최봉진은 2015년 경남FC에 입단했고 같은 해 광주FC로 이적하면서 K리그 무대에 데뷔했다. 최봉진은 높이를 활용하여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로 뛰어난 위치선정과 세이빙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K리그 9년차 베테랑 골키퍼답게 선·후배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그라운드에서 사기

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전남에 입단한 최봉진은 "역사가 깊은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장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23시즌 전남이 최소실점을 할 수 있도록 골문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의 재도약을 위해 최소실점에 도전하는 최봉진은 메디컬테스트 완료 후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하여 선의의 경쟁에 돌입했다.

한편 최봉진은 92년 생으로 GK, 키 194cm, 체중 90kg으로 경남(2015), 광주(2015.07~2017), 아산무궁화(2018~2019.07),



광주(2019), 부천(2020)에서 활약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이른 미국행' 최지만 "WBC 반드시 가고싶다"

팔꿈치 껌조각 제거 수술 받고 재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미국으로 떠나는 최지만(31·피츠버그 파이리츠)이 오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난 최지만은 출국을 앞두고 "WBC에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아직 팀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팀에 계속 가고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츠버그 구단에서 일단 몸 상태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부터 탬파베이에서 뛰었던 최지만은 2022시즌을 마친 뒤 트레이드를 통해 피츠버그로 이적했다.

최지만은 시즌을 마친 뒤 수술도 받았다. 지난해 5월 처음 오른 팔꿈치에 통증을 느낀 최지만은 진통제를 맞으며 한 시즌을 뛰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귀국한 뒤 오른 팔꿈치 껌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최지만은 지난 4일 발표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30인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팔꿈치 수술에도 최지만은 오는 3월 WBC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있다. 소속팀의 허락이다.

WBC에 출전하려면 소속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츠버그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새롭게 영입한 선수의 몸 상태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일찍 미국으로 떠나는 최지만은 재활을 이어가면서 소속팀의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다.

동산고 졸업 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최지만이 성인 대표팀으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실력이 떨어지는 탓에 대표팀에서 찾지 않았고, 어엿한 비러거가 된 이후에는 제약이 많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최지만은 "성인 대표팀으로 태극마크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배고픔이 있었다. 한국 선수들과 같이 편지 써서 13년이 넘었다"며 "항상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간절했던 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최지만과의 일문일답.

-평소보다 이른 출국인데.
"WBC가 있고, 제가 수술을 했다. 최대한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빨리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른 시기에 출국 일정을 잡았다."

-대표팀 미국 전지훈련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
"미국에 가면 팀의 트레이너와 주치의가 집으로 오기로 했다. 이후에 스케줄이 정해질 것 같다. 저는 일단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할 계획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WBC에 무척 가고 싶다. 팀에서 결정이 안된 것이 문제인데, 팀에 계속 출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팀에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하자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다."



최지만이 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현재 몸 상태나 컨디션은 어떤가.

"아직 재활 중이라 40~50% 정도다. 한국 날씨가 추워서 공을 아직 던지지 않았다. 재활 운동만 열심히 했다.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성인 대표팀이 처음인데 명단에 포함됐을 때 감정은 어떤가.

"최종 명단 발표 날이 4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전에 조בח현 기술위원장님과 면담을 해서 어느정도 선발될 줄 알고 있었다. 주변에서 축하 전화가 와서 최종 명단이 발표된 것을 알았다."

-새로운 소속팀에서 뛰게 되는데.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팀 동료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다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미 에드먼, 김하성도 WBC 최종 명단에 합류했는데, 함께 내야에서 호흡을 맞추면 어떤 것 같나.

"에드먼 선수는 잘하는 선수고, 김하성과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2루수, 유격수가 중요한 포지션이라 두 선수가 서로 잘 적응하면 좋을 것 같다."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를 상대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

"워낙 좋은 선수고 공도 정말 빠르다. 저와 우리 선수들과 빨리 적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WBC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준다면.

"라운드에서 일본전 뿐 아니라 전 경기를 다 이기고 싶다. 이후 이강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결승, 결승이 열리는 먼 곳(미국)으로 떠나고 싶다. 피츠버그 스프링캠프 장소가 미국 플로리다주이고, 준결승과 결승이 플로리다주에서 열린다. 그곳에서 대표팀과 함께 한 뒤 캠프에 합류하고 싶다."

-2023년 새해 소망을 말해달라.

"아무래도 WBC를 뒀 후 시즌에 나서면 선수들이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야구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WBC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